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 목 차

-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                                     |    |
|-------------------------------------|----|
| Executive Summary .....             | i  |
| 1. 일본경제의 위상 하락 .....                | 1  |
| 2. 한일 경쟁력 비교 .....                  | 3  |
| 3. 시사점 .....                        | 11 |
| <별첨> 한국과 일본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비교우위지수 ..... | 15 |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북아연구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박 용 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 ■ 한일 간 경제 격차 재확대 가능성 고조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양국 간 격차도 크게 축소되었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 격차가 재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GDP 대비 비중은 1980년에 한국이 0.6%, 일본이 9.8%로 양국 간 격차는 9.2%p였으나, 2016년에는 동 각각 1.9%, 6.3%로 4.4%p로 축소되었다. 1인당 GDP도 1995년에는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1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이 최근 6년 연속 GDP 갭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6년에는 양국 간 경제 격차가 재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미하나마 성장세가 이어져 양국 간 경제 격차 재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 ■ 한일 경쟁력 비교

한국경제가 일본과의 격차를 더 이상 축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확대 가능성이 커진 원인에 대해 양국 간 경쟁력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하, 양국 간 경쟁력에 대해 리스크 대응력, 산업·기술 경쟁력, 기업성과의 3개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대응력 (국부 규모) 한국의 국부 규모는 아직도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국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축소된 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약 10.9조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약 40.2% 수준에 불과하다. (외환보유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6년 기준 3,711.0억 달러로 일본 1조 2,168.4억 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38.9%로 일본 250.4%에 비해 크게 낮다. (국가신용등급) 한국이 일본에 비해 1~2단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Fitch 모두 투자적격국가 중 4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했고, Moody's는 세 번째로 높은 단계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 대해서는 S&P와 Moody's가 다섯 번째로 높은 단계, Fitch가 여섯 번째로 높은 단계로 평가해 한국보다 낮게 평가했다.

2) 산업·기술 경쟁력 (수출 경쟁력)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 시장 내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시장 내 한국의 對日 상대적 비교우위 품목 수는 5개로 변함이 없었다. 중국시장에서는 IT와 정밀기기, EU시장 내에서는 철강제품이 對日 상대적 비교우위 상품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EU 시장 내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의 상대적 對日 비교열위가 지속되는 등 선진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정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부가가치 경쟁력)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격차가 확대되었다. 한국의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율은 2000년 45.1%에서 2014년 40.2%로 하락했고, 일본도 동기간 53.6%에서

51.8%로 낮아졌으나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다. 더욱이 對日 부가가치를 격차도 동기간 8.5%p에서 11.6%p로 확대되었다. **(과학·기술 경쟁력) 한일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까지 상승하면서 2위 일본을 위협했으나, 이후 2016년에는 8위까지 하락하면서 2위인 일본과 격차가 재확대되었다. 기술경쟁력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8위로 일본을 앞지른 후 2005년에는 2위로 평가 받았으나, 2016년에는 15위까지 하락해 일본(10위)에 재역전되었다. 한편, 10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도 일본에 비해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일본에 비해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SOC 수준, 법적보호 등 5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한국은 기술수준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일본과 유사하게 평가받았으나, 나머지 부문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은 전체 25위, 일본은 전체 12위로 평가되었다.

3) 기업 성과 **(성장성)** 매출액으로 본 성장성은 일본 기업들의 회복력이 미약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0%대 증가율로 하락하면서 양국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본 수익성 격차는 축소되었지만, 이는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5%대 초반에서 2015년에는 4%대 후반으로 낮아진 반면 일본은 동기간 2%대 후반에서 3%대 후반으로 개선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국내 여건 악화로 향후 격차 재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략 재설정이 시급하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일본은 물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 시사점

첫째,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 확립은 물론 도전과 실패의 사회적 자산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투명성 제고와 토론·합의문화 정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실현 가능한 한국형 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중심의 수출 주도형 캐치업 전략과 IT 융합 분야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전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형성을 통해 분배의 성장 촉진 및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외 리스크 최소화과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대응 전략 및 大國 리스크의 분산 전략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또, 민간의 산업·기술 투자 확대,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부채 건전성 확보, 유동성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재정의 경기 조정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코퍼티션 전략 추진을 통해 주변국들의 경쟁력을 내재화하는 한편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

## 1. 한일 간 경제 격차 재확대 가능성 고조

○ 한일 양국의 對 세계 GDP 비중은 물론 1인당 GDP 수준도 축소되는 등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온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격차가 재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 對 세계 GDP 비중 격차 축소

- 한국의 對 세계 GDP 비중은 1980년 0.6%에서 2016년 1.9%로 1.3%p 상승
- 동기간 일본의 對 세계 GDP 비중은 9.8%에서 6.3%로 3.5%p 축소
- 특히, 일본의 경우 對 세계 GDP 비중이 17.5%로 최고 수준에 달했던 1994년과 비교하면 11.2%p 감소

### - 1인당 GDP 격차도 축소

-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격차가 가장 컸던 시기는 1995년으로 3만 196달러에 달했으나, 2016년 현재 9,671달러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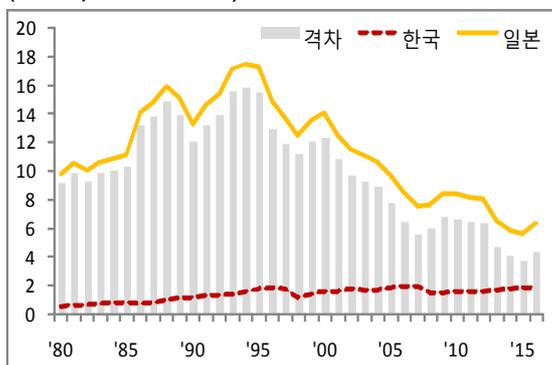
### - 단, 최근 들어 양국 간 격차 재확대 가능성 고조

-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GDP 갭률((실질GDP-잠재GDP)/잠재GDP×100)이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일본과의 성장 격차가 축소

○ 본고에서는 한일 간 격차가 왜 최근에 다시 벌어지게 되었는지 양국 간 경쟁력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한일의 세계 GDP 대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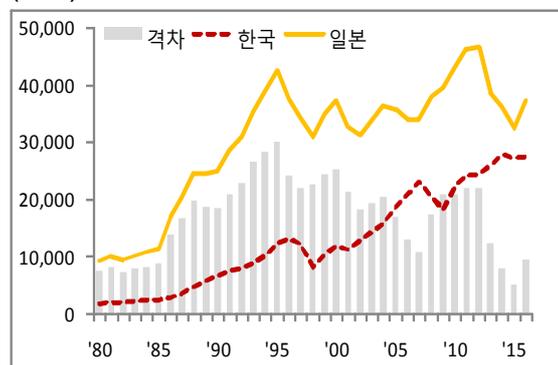
(%, %p, 명목 기준)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 한일의 1인당 GDP 추이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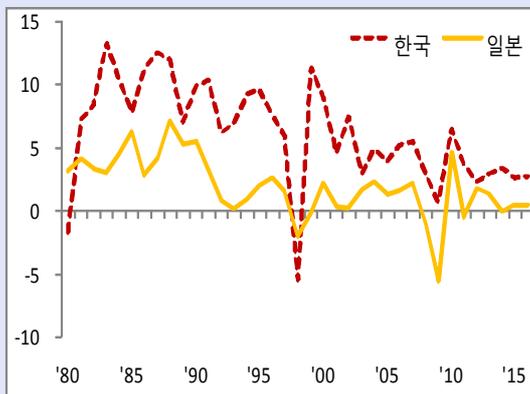
자료 : IMF.

<참고> 한일 GDP 성장률 및 GDP 갭률 추이 비교

○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간 GDP 갭률이 동일한 수준까지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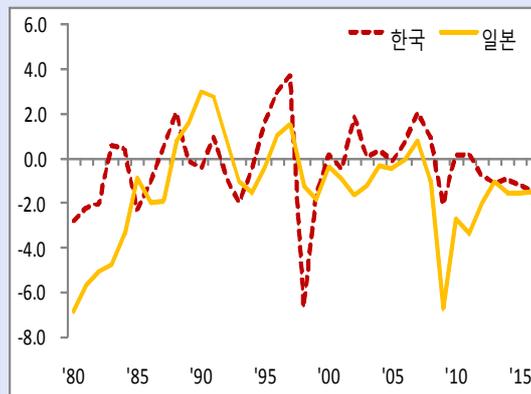
- 한국 경제의 성장세 하락에 따르는 한일 간 GDP 성장률 격차 축소
  -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80년대 8.8%→'90년대 7.1%→'00년대 4.7%→'10~'16년 3.4%로 지속 하락
  -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GDP 성장률 격차는 '80년대 4.4%p→'90년대 5.6%p→'00년대 4.1%p→'10~'16년 2.2%p로 크게 축소
  
- 한일 양국의 GDP 갭률도 동일한 수준까지 근접
  - 한국의 GDP 갭률은 지난 2012년 -0.81%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6년에는 -1.45%까지 하락
  - 일본의 경우, 2007년(0.78%)을 제외하면 1998년(-1.25%)부터 2016년(1.50%)까지 18년 간 GDP 갭률이 마이너스 수준
  - 2016년 양국 간 GDP 갭률 차이는 0.05%p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성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국 간 경제 규모 상의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한일의 GDP 성장률 추이 >  
(%, 실질)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 한일의 GDP 갭률 추이 >  
(%)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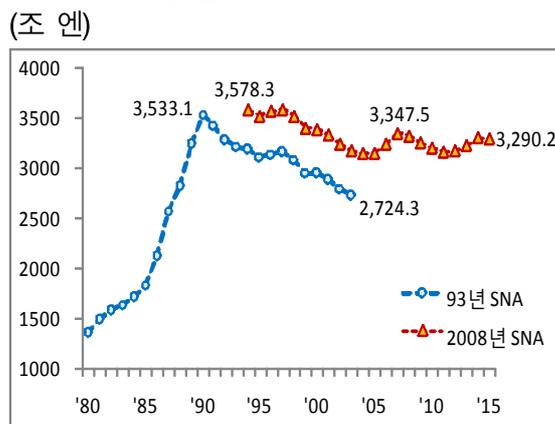
## 2. 한일 경쟁력 비교

### 1) 리스크 대응력

- 한국의 경우, 일본에 비해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국부 규모나 외환보유고 수준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리스크 발생 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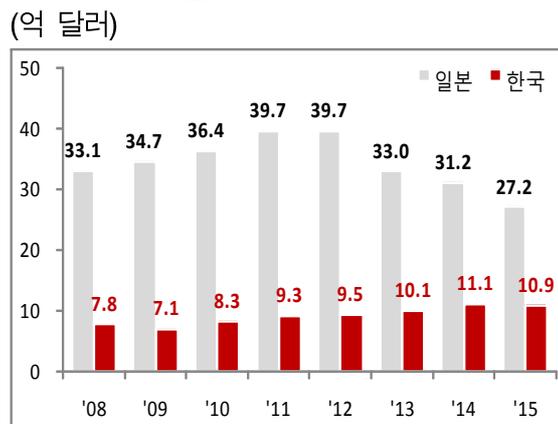
- (국부 규모) 한일 간 국부 규모 차이는 대폭 축소되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한국의 국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약 7.1조 달러로 일본 (약 27.6조 달러) 대비 약 20.4% 수준
  - 이후 한국의 국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에는 일본의 약 40.2% 수준(약 10.9조 달러)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sup>1)</sup>

< 일본의 국부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 한일 국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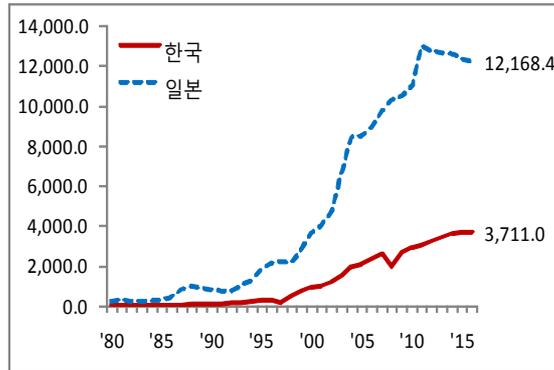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日本 内閣府, 현대경제연구원.  
주 : 일본은 연평균 환율(엔/달러)로 환산.

- (외환 보유고) 일본이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
  - 2016년 일본의 외환 보유고 규모는 1조 2,168.4억 달러로 한국 3,711.0억 달러에 비해 약 3.3배나 많음

1) 각국의 통화가치 변동에 따라 국부 규모도 크게 변화함. 양국 간 국부 격차는 굳이 통화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매우 큰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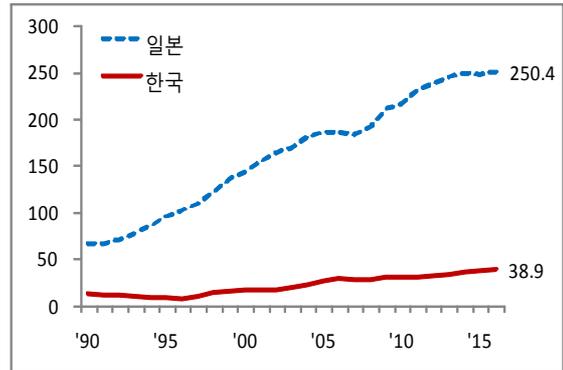
-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
  - 2016년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50.4%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의 38.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한일 외환보유고 추이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 한일 GDP 대비 국가부채 추이 >  
(%)



자료 : IMF.

- (국가신용등급)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에 비해 1~2단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Fitch 모두 투자적격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은 AA-로 평가, Moody's는 세 번째로 높은 Aa2
  - 이는 동일한 투자적격국가이지만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에 비해 1~2단계 높은 수준임

< 한일 기관별 국가신용등급 >

| 구분 | S&P         | Moody's      | Fitch        |
|----|-------------|--------------|--------------|
| 한국 | AA-(16.8.8) | Aa2(17.2.21) | AA-(16.10.2) |
| 일본 | A+(16.9.1)  | A1(16.2.2)   | A(16.6.13)   |

자료 : 기획재정부, Bloomberg.

주 : 투자적격국가에 대한 평가기준은 S&P와 Fitch는 최상위부터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순의 10단계로 나누는 반면 Moody's는 동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순으로 10단계 구분함.

2) 산업·기술 경쟁력

○ (수출경쟁력)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와 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 시장 내 격차는 유지<sup>2)</sup>

- (세계시장 현시비교우위지수) 한국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상승
  - 세계시장 내 한국의 對日 상대적 비교우위품목은 1990년 대비 2015년 5개로 불변
- (비교우위지수) 중국시장 내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미국과 EU 시장 내에서는 상대적 비교우위 품목이 고착화
  - 한국은 중국시장(1995년 대비 2015년)에서는 IT와 정밀기기, EU 시장(2000년 대비 2015년)에서는 철강제품이 對日 비교우위로 전환
  - 단, 미국과 EU 시장 내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의 상대적 비교열위는 지속

< 한일 간 세계 및 주요 지역 시장 내 비교우위의 품목별 변화 >

| 구분              |         | 현시비교우위지수           | 비교우위지수                 |                   |                  |
|-----------------|---------|--------------------|------------------------|-------------------|------------------|
|                 |         | 세계 시장              | 미국 시장                  | 중국 시장             | EU 시장            |
| 한국의 對日 상대적 비교우위 | 유지      | 석유화학, 철강제품, IT, 조선 |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IT, 조선 | 석유화학, 조선          | 석유화학, 철강, IT, 조선 |
|                 | 비교우위 전환 | 정밀기기               | -                      | IT, 정밀기기          | 철강제품             |
|                 | 비교열위 전환 | 철강                 | -                      | -                 | -                |
| 일본의 對韓 상대적 비교우위 | 유지      | 기계, 자동차            |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 철강, 철강제품, 기계, 자동차 |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
|                 | 비교우위 전환 | 철강                 | -                      | -                 | -                |
|                 | 비교열위 전환 | 정밀기기               | -                      | IT, 정밀기기          | 철강제품             |

자료 :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1)분성대상 산업은 석유화학(HS27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정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철강(HS72 철강), 철강제품(HS73 철강의 제품), 기계(HS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 IT(HS85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자동차(HS87 철도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조선(HS89 선박과 수상구조물, 정밀기기(HS90 광학기기, 사진·영화용 기기, 측정·검사 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등 8개 품목임.

2)세계시장 내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기간은 '90년 대비 '15년 변화, 비교우위지수의 미국과 중국 시장은 '95년 대비 '15년 변화, EU 시장은 '05년 대비 '15년 변화임.

2) 자세한 분석내용은 <별첨> 참고.

<참고>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

-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 또는 순수출(수출-수입)의 무역변수 등을 국가간 또는 산업간 비교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 성과 지수임

-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RCA_{kw}^i = \frac{(X_{kw}^i / X_{ww}^i)}{(X_{kw} / X_{ww})} = \frac{(X_{kw}^i / X_{kw})}{(X_{ww}^i / X_{ww})}$  로 산출됨, 단, 여기서  $RCA_{kw}^i$  는 k국 i품목에 대한 對세계 현시비교우위지수,  $X_{kw}^i$  는 k국 i품목에 대한 對세계 수출액,  $X_{ww}^i$  전세계 i품목에 대한 對세계 수출액,  $X_{kw}$  는 k국 對세계 총 수출액,  $X_{ww}$  는 전세계 수출액임

-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i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는 특정 산업별 수출구조와 수입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국 내에서의 비교우위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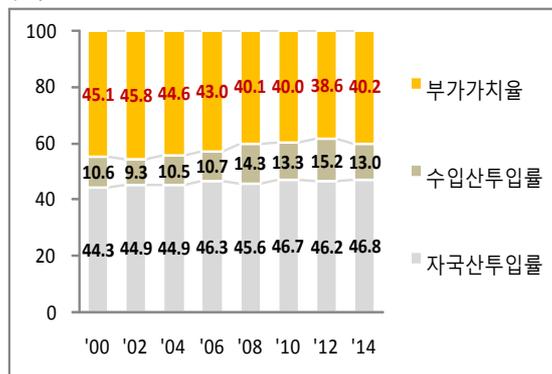
- CA지수는  $\frac{(RX_i / RX)}{(RE_i / RE)}$  로 산출됨. 단, 여기서  $RX_i$  는 특정국의 상대국에 대한 i품목의 수출액,  $RX$ 는 특정국의 상대국에 대한 총수출액,  $RE_i$ 는 상대국의 i품목 수입액,  $RE$  는 상대지역의 총수입액임

- CA지수가 클수록 해당 산업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
  - CA지수는 발라사의 RCA지수를 변형시킨 것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비교우위지수로 활용됨
  - 특정지역의 수입구조를 분모로 하는 CA지수는 동지역에서 여러 국가의 비교우위를 비교함에 있어서 동일한 시장조건 하에서 산출됨
  - 따라서 특정지역 내 국가 간 비교우위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타당성을 가지나, 특정 국가의 비교우위를 수입구조가 다른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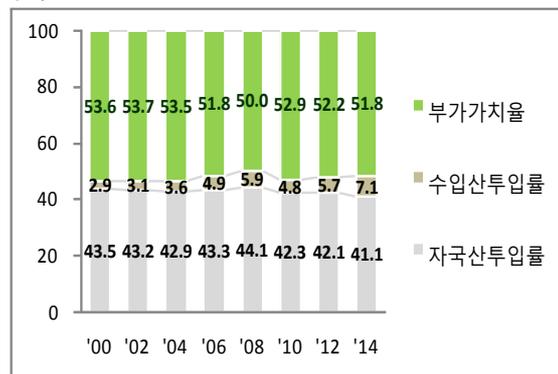
○ (부가가치 경쟁력) 한국은 일본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양국 간 격차도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확대

-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자국산 중간재 투입률
  - 한국의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자국산 중간재 투입률은 2000년 44.3%에서 2014년 46.8%로 2.5%p 상승
  - 반면, 일본은 동기간 43.5%에서 41.1%로 2.4%p 하락
- 수입산 중간재 투입률은 한국이 일본의 약 2배 수준
  - 한국의 수입산 중간재 투입률은 2000년 10.6%에서 2014년 13.0%로 2.4%p 상승
  - 동기간 일본도 2.9%에서 7.1%로 4.2%p 상승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
- 그 결과 한국의 부가가치율이 일본보다 더 빨리 하락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
  - 한국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 45.1%에서 2014년 40.2%로 4.9%p 하락하였으며, 동기간 일본은 53.6%에서 51.8%로 1.8%p 하락에 그침
  - 이로 인해 한일 간 부가가치율 격차가 2000년 8.5%에서 2014년에는 11.6%로 3.1%p 확대

< 한국의 부가가치율 추이 >  
(%)



< 일본의 부가가치율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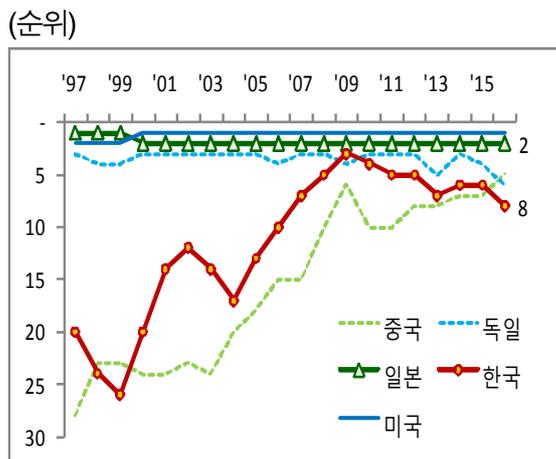


자료 : WIOD 데이터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자가산투입률(%) + 수입산투입률(%) + 부가가치율(%) = 100(%)

○ (과학·기술 경쟁력)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일본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10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수준도 일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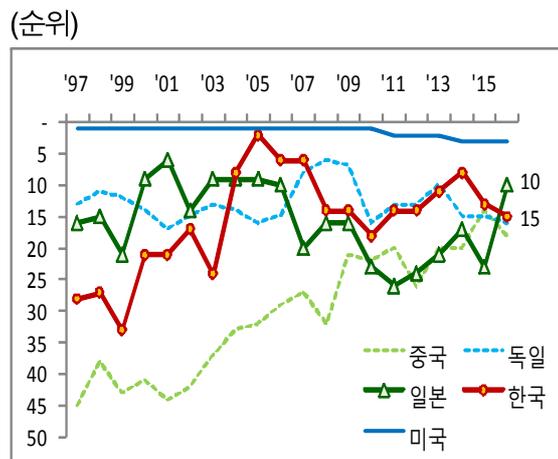
- 한국의 과학경쟁력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나, 2009년 이후 일본과의 격차가 재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까지 상승하면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016년에는 8위까지 하락
  - 일본은 2000년대 들어 미국에 역전되었으나, 2위 수준을 유지
- 기술경쟁력의 경우, 그동안 빠른 추격을 통해 10여 년간 일본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6년 들어 역전
  -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2004년 8위로 일본을 역전한 후 2005년에는 2위까지 상승
  -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축소, 2016년에는 15위까지 하락 하면서 일본(10위)에 재역전

< 과학경쟁력 추이 >



자료 : IMD.

< 기술경쟁력 추이 >



자료 : IMD.

- 10대 국가전략기술의 수준도 일본에 비해서는 크게 뒤지고 있음
  - 10대 국가전략기술 전체의 수준을 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2.8년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부문별로는 항공·우주, 재난·재해·안전 부문은 4년 이상 일본과 기술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자·정보·통신 부문에서도 일본에 비해 1.2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0대 기술분야별 한국의 對 주요국 기술격차 추이 >

| 구분             | 對 중국        |             | 對 일본       |            | 對 EU       |            | 對 미국       |            |
|----------------|-------------|-------------|------------|------------|------------|------------|------------|------------|
|                | '12년        | '14년        | '12년       | '14년       | '12년       | '14년       | '12년       | '14년       |
| <b>전체 기술수준</b> | <b>-1.9</b> | <b>-1.4</b> | <b>3.1</b> | <b>2.8</b> | <b>3.3</b> | <b>3.3</b> | <b>4.7</b> | <b>4.4</b> |
| 1.전자/정보/통신     | -2.4        | -1.8        | 1.3        | 1.2        | 1.0        | 1.2        | 2.9        | 2.7        |
| 2.의료           | -1.9        | -1.5        | 2.2        | 1.9        | 2.6        | 2.5        | 4.1        | 4.0        |
| 3.바이오          | -2.5        | -1.7        | 3.1        | 2.8        | 3.5        | 3.3        | 5.0        | 4.5        |
| 4.기계/제조/공정     | -2.3        | -1.7        | 2.7        | 2.5        | 2.9        | 2.8        | 3.8        | 3.3        |
| 5.에너지/자원/극한기술  | -1.3        | -0.9        | 3.3        | 2.9        | 3.9        | 4.1        | 4.8        | 4.6        |
| 6.항공/우주        | 4.5         | 4.3         | 5.4        | 4.5        | 7.6        | 6.8        | 10.4       | 9.3        |
| 7.환경/지구/해양     | -2.9        | -3.3        | 4.1        | 3.7        | 4.9        | 4.6        | 5.4        | 5.0        |
| 8.나노/소재        | -1.2        | -1.1        | 3.4        | 2.9        | 2.8        | 2.7        | 4.5        | 4.1        |
| 9.건설/교통        | -2.8        | -1.8        | 4.0        | 3.6        | 3.9        | 3.7        | 4.7        | 4.3        |
| 10.재난/재해/안전    | -1.9        | -1.6        | 4.2        | 4.2        | 3.6        | 3.8        | 6.3        | 6.0        |

자료 : KISTEP, 2014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2015년.

○ (4차 산업혁명 대응력) 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 부문의 경쟁력도 열세

-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분야에 걸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기술 수준 측면에서는 한국이 23위로 21위인 일본과는 상대적으로 타 부문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음
  -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과 법적보호에 대한 평가는 일본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교육시스템과 SOC 수준에서도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전체 순위는 한국이 25위인 반면 일본은 12위로 미래 준비 측면에서도 일본에 미치지 못함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국가 순위 >

(순위)

| 순위 | 국가  | 노동시장 유연성 | 기술수준 | 교육 시스템 | SOC 수준 | 법적 보호 | 전체   |
|----|-----|----------|------|--------|--------|-------|------|
| 1  | 스위스 | 1        | 4    | 1      | 4.0    | 6.75  | 3.4  |
| 5  | 미국  | 4        | 6    | 4      | 14.0   | 23.00 | 10.2 |
| 12 | 일본  | 21       | 21   | 5      | 12.0   | 18.00 | 15.4 |
| 13 | 독일  | 28       | 17   | 6      | 9.5    | 18.75 | 15.9 |
| 25 | 한국  | 83       | 23   | 19     | 20.0   | 62.25 | 41.5 |
| 28 | 중국  | 37       | 68   | 31     | 56.5   | 64.25 | 5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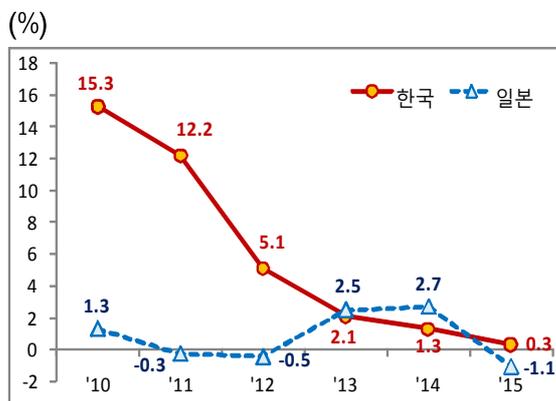
자료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3) 기업 성과

○ (매출액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 성과 측면에서도 일본의 회복력이 미약한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양국 간 차이가 크게 축소

-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매출액 증가율은 일본 기업들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이 0%대까지 축소되면서 양국 간 격차가 축소
-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한국이 최근 들어 회복 기대감은 있지만 4%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본은 3%대 후반 수준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매출액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日本 財務省.

<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日本 財務省.

### 3. 시사점

- 한국은 경제 규모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재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한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재설정이 시급함
  - 한국의 빠른 일본 추격의 이면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최근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국 간 격차 재확대는 피할 수 없는 귀결로 보임
  - 특히, 한국은 국가 재정 여력이나 신용도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리스크에 직면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국가 리스크 대응력이 반드시 일본에 비해 뛰어나다고 할 수 없음
  - 더욱이, 미시적으로도 현재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경쟁력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등에서도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일본은 물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시급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함
  - 시장경제원리와 성과보상주의 확립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
    -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원리가 지켜지도록 정부는 공정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 즉, 국민 후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제도를 확충·정착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도전과 실패의 사회적 자산화 노력 강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사회 전반의 도전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정규 교육이나 범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인식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시켜야 함
  
- 국가 투명성 제고와 토론·합의문화 정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제도, 행정 등 국가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생산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 문화 정착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꾀해야 함
  
- 둘째, 실현 가능한 한국형 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투 트랙(two-track) 성장 전략의 추진을 통한 안정 성장 기반 확보 및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가능성 제고
    - 한국경제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작은 대외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처럼 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지속성장 가능성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음
    - 더욱이 과학기술이나 산업 등 미시 측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과는 큰 격차가 있어, 여전히 민간 중심의 수출 주도형 캐치업(catch-up) 전략은 유효함
    - 한편, IT 분야와 같이 일부 산업 및 기술 부문에서는 선진국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 성장 주도형 분배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분배가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당장의 분배 기능 강화가 오히려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분배 기능마저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

- 단, 분배정의 실현 없이는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생산성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분배원칙을 통해 분배가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기 발생 시 경제의 안전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대외 리스크 최소화과 내수 부분의 경기 안전판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함

-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대응력 제고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충격은 대부분 금융 및 외환시장을 통해 국내로 전이되고 있음
- 따라서 투기자금과 변동성 모니터링 및 정책 어나운스효과 강화 등의 사전적 대응을 통해 국내 외환·금융 시장의 상시적 안정화를 꾀해야 함
- 한편, 글로벌 충격의 국내 전이 시 대응을 위해 외환보유고의 적정 관리는 물론 대외 통화스왑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大國 리스크의 분산 전략 추진

- 중국, 미국, EU 등과 같이 특정 大國 또는 지역의 위기로 인한 국내 과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 자본의 다국적화 등을 추진

- 내수 부분의 경기 안전판 기능 강화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및 기술 투자 확대,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을 촉진해야 함
-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 자산시장 안정화를 통한 시중 유동성 활용도 제고, 금융 당국의 금융 관리·감독 기능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내수 경기의 안정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함
- 이와 더불어 경기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지양,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과 통화 정책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재정 정책의 실효성과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마지막으로, 주변국들과의 코퍼티션(cooperation+competition)을 통해 주변국들의 경쟁력 내재화 및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함

- 중국 시장의 활용 전략 재구축

- 중국 시장의 경우, 최근 大國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 매력도는 여전히 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활용 전략 재구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도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본 제휴 등을 통한 자본수익 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쟁력 내재화

- 일본은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앞서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근 들어 약해진 양국 간 교류·협력 채널을 재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한편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先 신뢰 구축 後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면, 인적 교류의 강화→비즈니스 정보 교류 확대→공공부문의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민간 부문 비즈니스 시범 사업→해외 시장 동반 진출 모색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함

- 아시아 시장에 대한 차별화 전략 추진

- 최근 아시아는 고성장이 지속되고, 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지역임
- 단, 아시아 시장은 국가별 시장 특성이 서로 다르고, 또 특정 국가나 지역 내 특성도 서로 다른 시장으로 차별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아시아 시장은 중국과 일본과의 오랜 연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리스크도 여전히 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이부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박용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별첨> 한국과 일본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및 비교우위지수(CA) 추정 결과

< 표1. 세계시장에서의 한일 간 8대 품목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 구분    | 한국          |      |      |             | 일본          |      |      |             |
|-------|-------------|------|------|-------------|-------------|------|------|-------------|
|       | '90         | '00  | '10  | '15         | '90         | '00  | '10  | '15         |
| 석유화학  | <b>0.19</b> | 0.56 | 0.46 | <b>0.62</b> | 0.08        | 0.03 | 0.11 | 0.18        |
| 철 강   | <b>1.64</b> | 1.73 | 1.84 | 1.91        | 1.14        | 1.36 | 1.99 | <b>2.20</b> |
| 철강제품  | <b>1.37</b> | 1.03 | 1.01 | <b>1.22</b> | 1.05        | 0.81 | 0.98 | 0.94        |
| 기 계   | 0.52        | 1.17 | 0.93 | 0.99        | <b>1.42</b> | 1.44 | 1.63 | <b>1.58</b> |
| I T   | <b>1.93</b> | 1.71 | 1.82 | <b>1.83</b> | 1.88        | 1.59 | 1.31 | 1.07        |
| 자 동 차 | 0.28        | 0.99 | 1.58 | 1.60        | <b>1.79</b> | 2.09 | 2.63 | <b>2.61</b> |
| 조 선   | <b>4.18</b> | 7.55 | 8.78 | <b>8.98</b> | 1.88        | 3.39 | 2.96 | 2.25        |
| 정밀기기  | 0.37        | 0.35 | 2.56 | <b>1.84</b> | <b>1.90</b> | 2.26 | 1.62 | 1.70        |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산업별 코드는 석유화학 HS27(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정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철강 HS72(철강), 철강제품 HS73(철강의 제품), 기계 HS84(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 IT HS85(전자기와 그 부분품), 자동차 HS87(철도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조선 HS89(선박과 수상구조물), 정밀기기 HS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 기기, 측정·검사 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표2. 미국시장에서의 한일 간 8대 품목 비교우위지수(CA) >

| 구분    | 한국          |      |      |      |             | 일본          |      |      |      |             |
|-------|-------------|------|------|------|-------------|-------------|------|------|------|-------------|
|       | '95         | '00  | '05  | '10  | '15         | '95         | '00  | '05  | '10  | '15         |
| 석유화학  | <b>0.06</b> | 0.19 | 0.31 | 0.38 | <b>0.48</b> | 0.02        | 0.02 | 0.03 | 0.03 | 0.05        |
| 철 강   | <b>1.02</b> | 1.64 | 1.78 | 1.72 | <b>2.40</b> | 0.57        | 0.48 | 0.46 | 0.85 | 0.98        |
| 철강제품  | <b>1.86</b> | 1.79 | 1.75 | 2.27 | <b>1.82</b> | 0.96        | 0.88 | 0.89 | 1.09 | 0.92        |
| 기 계   | 0.79        | 1.66 | 1.12 | 1.36 | 1.22        | <b>1.60</b> | 1.46 | 1.63 | 1.57 | <b>1.51</b> |
| I T   | <b>3.10</b> | 2.05 | 2.25 | 2.12 | <b>1.22</b> | 1.55        | 1.46 | 1.27 | 1.00 | 0.80        |
| 자 동 차 | 0.56        | 1.13 | 2.20 | 2.28 | 2.80        | <b>1.95</b> | 2.28 | 3.16 | 3.73 | <b>2.92</b> |
| 조 선   | <b>9.77</b> | 9.21 | 7.57 | 3.39 | <b>7.60</b> | 1.55        | 1.22 | 1.04 | 0.95 | 0.35        |
| 정밀기기  | 0.53        | 0.43 | 0.69 | 0.86 | 0.52        | <b>2.30</b> | 2.57 | 1.98 | 1.81 | <b>1.51</b> |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산업별 코드는 석유화학 HS27(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정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철강 HS72(철강), 철강제품 HS73(철강의 제품), 기계 HS84(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 IT HS85(전자기와 그 부분품), 자동차 HS87(철도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조선 HS89(선박과 수상구조물), 정밀기기 HS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 기기, 측정·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표3. 중국시장에서의 한일 간 8대 품목 비교우위지수(CA) >

| 구분    | 한국   |      |      |      |      | 일본   |      |      |      |      |
|-------|------|------|------|------|------|------|------|------|------|------|
|       | '95  | '00  | '05  | '10  | '15  | '95  | '00  | '05  | '10  | '15  |
| 석유화학  | 1.35 | 1.09 | 0.56 | 0.46 | 0.30 | 0.35 | 0.08 | 0.16 | 0.10 | 0.07 |
| 철 강   | 1.36 | 1.53 | 1.55 | 1.79 | 2.07 | 2.06 | 1.66 | 1.85 | 3.31 | 4.36 |
| 철강제품  | 1.27 | 0.90 | 0.87 | 1.22 | 1.31 | 1.67 | 1.90 | 1.99 | 2.06 | 2.20 |
| 기 계   | 0.52 | 0.72 | 1.08 | 1.00 | 1.18 | 1.33 | 1.28 | 1.46 | 1.81 | 2.06 |
| I T   | 0.61 | 0.82 | 1.03 | 1.25 | 1.50 | 1.38 | 1.14 | 0.92 | 0.96 | 0.83 |
| 자 동 차 | 1.23 | 0.56 | 2.79 | 1.25 | 1.12 | 2.01 | 2.38 | 2.64 | 2.84 | 2.11 |
| 조 선   | 0.03 | 0.22 | 0.80 | 1.00 | 5.52 | 0.14 | 0.10 | 1.16 | 0.26 | 0.09 |
| 정밀기기  | 0.24 | 0.22 | 1.14 | 2.82 | 2.37 | 1.45 | 1.74 | 0.95 | 1.01 | 1.59 |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산업별 코드는 석유화학 HS27(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정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철강 HS72(철강), 철강제품 HS73(철강의 제품), 기계 HS84(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 IT HS85(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자동차 HS87(철도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조선 HS89(선박과 수상구조물), 정밀기기 HS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 기기, 측정·검사 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 표4. EU시장에서의 한일 간 8대 품목 비교우위지수(CA) >

| 구분    | 한국    |       |       | 일본   |      |      |
|-------|-------|-------|-------|------|------|------|
|       | '05   | '10   | '15   | '05  | '10  | '15  |
| 석유화학  | 0.09  | 0.21  | 0.34  | 0.04 | 0.05 | 0.03 |
| 철 강   | 0.42  | 1.07  | 1.75  | 0.15 | 0.22 | 0.26 |
| 철강제품  | 0.42  | 0.62  | 0.95  | 0.58 | 0.85 | 0.82 |
| 기 계   | 1.10  | 1.01  | 1.15  | 1.90 | 2.23 | 2.24 |
| I T   | 3.90  | 3.13  | 1.98  | 2.23 | 1.86 | 1.62 |
| 자 동 차 | 1.89  | 1.18  | 1.73  | 2.29 | 2.39 | 2.14 |
| 조 선   | 12.19 | 24.02 | 31.35 | 0.92 | 1.30 | 1.03 |
| 정밀기기  | 1.02  | 2.16  | 1.82  | 2.61 | 2.95 | 2.8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산업별 코드는 석유화학 HS27(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정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철강 HS72(철강), 철강제품 HS73(철강의 제품), 기계 HS84(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 IT HS85(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자동차 HS87(철도 및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조선 HS89(선박과 수상구조물), 정밀기기 HS90(광학기기, 사진·영화용 기기, 측정·검사 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